

현대오일, 아동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

현대오일뱅크가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.



현대오일뱅크는 서영태 사장과 경영지원본부장 신방호 부사장, 팀장 등 임직원 30여명이 3월13일 서울시 중구 예장동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남산원을 찾아 봄맞이 집안 페인트칠을 하고 허물어진 축대벽 등 시설을 보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3월15일 밝혔다.

서영태 사장은 “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,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”며 “봉사활동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”고 말했다.

서영태 사장은 이날 소정의 기부금을 남산원에 전달했다.

현대오일뱅크는 2007년 시작한 <사우(社友) 1봉사팀 캠페인>을 통해 전체 임직원 1650여명 가운데 70%에 해당하는 1100여명이 1곳 이상의 봉사팀에 가입해 전국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9/03/17>